

예나씨와 함께 만나보는

원로문화예술인

2. 우리의 소리를 대표하는 '국악인 조순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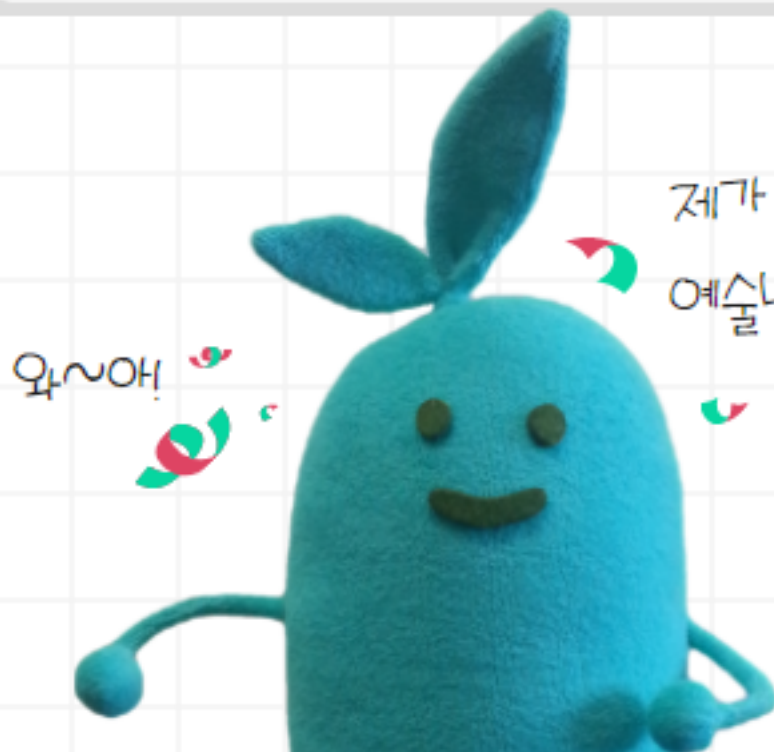


예술나무포럼의 새로운 후원 대상

원로문예인 생애사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씨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예술나무포럼**에서 **우리의 소중한 예술 유산을 보존**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발간하기로 한 '**원로문예인 전기**'의 주인공 중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예술나무운동의 마스코트!
예술나무 요정 '예나씨'입니다!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브랜드 예술나무운동**
예술도 나무를 키우듯 아끼고 관심을 가져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술나무 한 그루'를 키움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멋과 흥을 멋있게 표현해주는

국악인

올 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이날치 밴드'.
모두들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도 21세기 판소리로 K-흥을 돋우는
'범 내려온다'는 <수궁가>의 한 대목을 활용하여 재탄생한 곡으로
우리나라 판소리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출처: 구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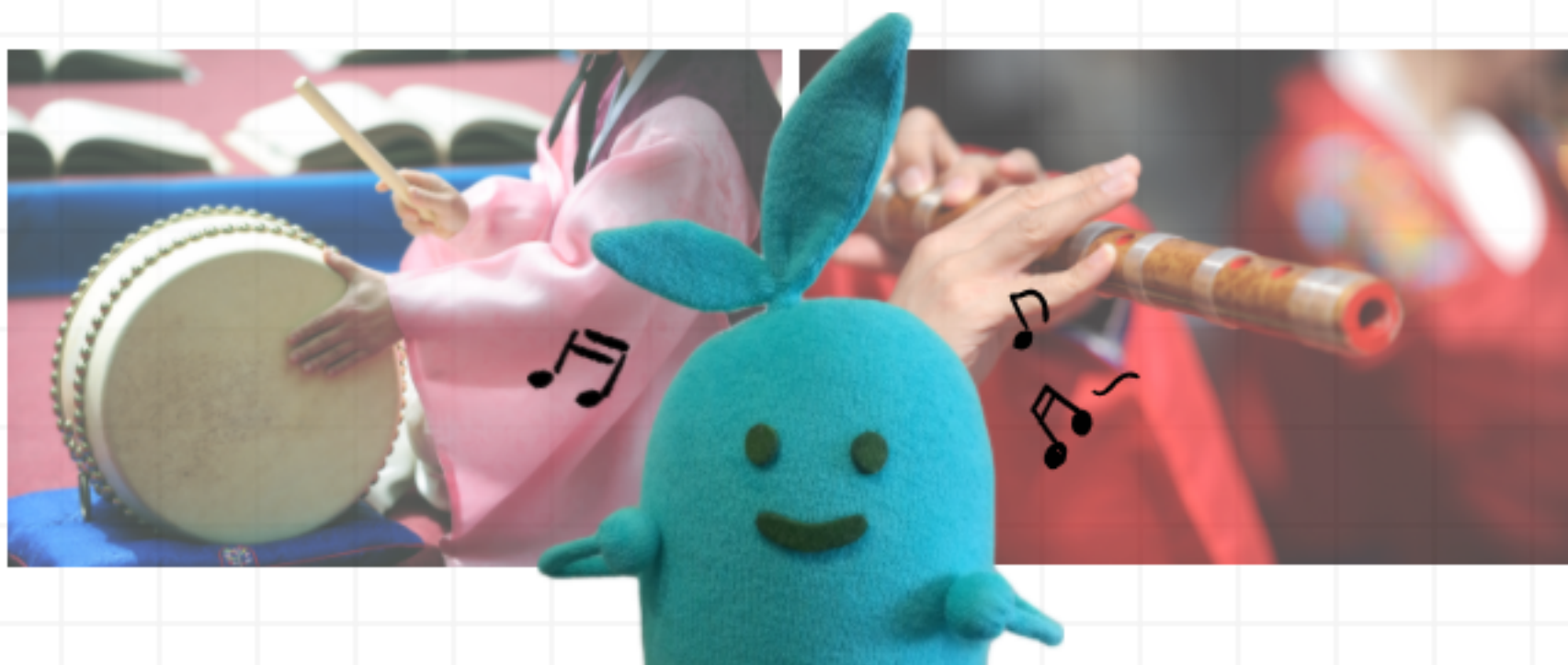


이날치 밴드 방송 장면 및 '범 내려온다' 영상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박초월 선생님의 제자

판소리 명창

몇십 년 전에는 전통 판소리 <수궁가>를 뛰어나게 부르셨던 명창이 계시는데, 바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받은 박초월 선생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조순애 국악인'은 박초월 선생님의 문하에서 수궁가뿐만 아니라 춘향가, 흥보가 등 다양한 소리의 전판을 배우셨고,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뛰어난 명인과 명창이 배출된 풍류의 고장 화순에서 태어난

조순애 국악인

1929년 많은 국악 명인들이 배출된 풍류의 고장 화순에서 태어난 '조순애 국악인'은 당시 피리와 태평소의 대가 조계남 선생님과 판소리의 명창 조몽실·박기창 선생님을 이어 **소리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평생 우리나라의 소리를 익히셨던 분입니다.**

(출처 : 국악음반박물관)



조순애 국악인의 소리 녹음현장 모습

명창 조상선 선생님에게 인정받았던

동일창극단의 유망주

'조순애 국악인'은 열두 살부터 소리공부를 시작하여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의 토막소리부터 승무까지 모두 섭렵하셨었다고 합니다. 열여섯 살에는 당시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동일창극단에 당당하게 입단**하셨다고 합니다.

* **동일창극단**: 1939년 창립되었던 창극 극단으로 임방울·박초월·박귀희 선생님 등이 창단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다. 1943년 제일극장에서 <남강의 풍운>으로 창단공연을 가졌다.

(출처: 구글이미지)



동일창극단 입단 시험 장소였던 서울 종로 우미관 전경

옛민요부터 신민요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었던

판소리계의 실력자

'조순애 국악인'은 늘 실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육자배기>, <개고리타령>, <흥타령>과 같은 옛민요는 스승님이 없이도 혼자 익혀 부를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불리고 있는 <단오노래>, <칠석놀이>, <널뛰기>와 같은 신민요는 바로 익혀 부르셨다고 합니다.

* 남도민요 : 전라도지방의 민요를 가리키는 말로 넓게는 경상남도 서남부지방의 민요를 포함한다. <단오노래>, <칠석놀이> 뿐만 아니라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흥타령> 등도 남도민요라고 한다.

(출처: 국악음반박물관)



조순애 국악인 관련 신문기사

점점 잊혀져가던 국악을 다양한 작업을 통해 지켜낸

우리 소리의 대표자

1950년대 후반 처음으로 남도민요인 <칠석놀이>를 1967년에는 스승인 박초월 선생님 등과 함께 춘향전 중 <농부가> 등을 녹음하여 남기셨고, 1997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구음'과 '장고 반주'를 녹음하며 음반 제작에 참여하였고, 1998년에는 라디오에 출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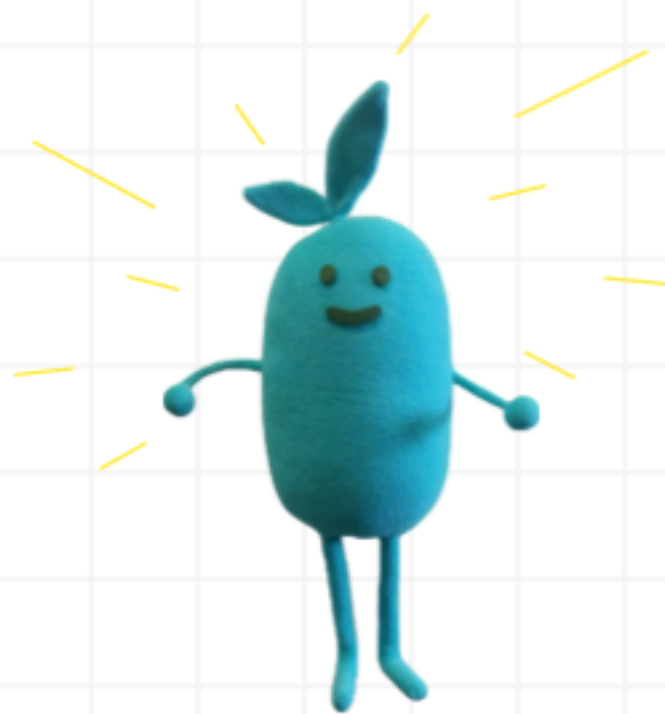


조순애 국악인의 음반 이미지

먼 훗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활짝피게 하는

예술나무운동

여러분, 우리나라만의 소리들을 널리 알리셨던 '조순애 국악인'의
지난날들이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다양한 소리들을 꾸준하게 익히고,
전달해 주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 사라지지 않고
더 멋있게 변신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심어주시는
예술나무씨앗이 점점 더 멋있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함께 참여해보시겠어요~?



예술나무운동 참여방법



검색창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을 입력



메인화면에서 '후원하기'를 클릭

예술나무운동 ARTISTREE

문화예술에 후원하는 **당신도**
예술가입니다

후원하기

나의후원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심어주신 **예술나무 한 그루**가
또 하나의 **예술**로 자라납니다!!